

# 한부모가족 사회적 자원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Social Family Resources on the Well being of Single-Parent Households in Kore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수 서지원\*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Professor, Seo, Jiwo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o improve family well-being of single-parents, the utilization of familial social resources—including formal supports, informal supports, and social capital—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mily resource management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vels of familial social resourc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with those of two-parent household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ree factors, specifically poverty, family types by gender and age of parent, and householders' employment. In addition, the determinants of single-parent households' wellbeing wer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economic wellbeing and psychological life satisfaction. Data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ingle-parent households utilized their familial social resources more actively than their counterpar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formal support of child care. Second, single parent households utilized their familial social resources differently in relation to poverty, family types, and parents' employment. Thir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wellbeing and psychological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ypes of familial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conomic wellbeing of baby boomers were provided.

Key Words : 한부모가족(single-parent households), 가족의 사회적 자원(familial social resources), 삶의 질(family well-being), 사회자본(social capital)

\* 주저자, 교신저자 : 서지원(jiwonseo@knou.ac.kr)

## I. 서론

최근 한부모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해당하는 약 159만 가구에 이르면서 급변하는 우리사회의 가족환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1)<sup>1)</sup>. 이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과 부담이 한쪽 부모에게 치우쳐 있는 가정이 더 이상 소수집단이 아니며, 자녀양육의 부담을 홀로 수행하는 부모와 성인이 되기 이전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하여 양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한부모의 고충은 개별가정의 자원관리에 한정된 사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비율 역시 지난 2005년 9.0%에서 2010년 12.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통계청, 2011), 이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자녀도 돌보아야 하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이중부담을 경험하는 한부모가족의 비율도 높아짐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기울여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 역시 이와 같은 경제적 빈곤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시장노동에서 우위를 점하는 남성가장이 부재함으로 인해 한부모 어머니가 처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주로 전체되어 있다(Edin & Lein, 1997; 손상희·성미애·진미정, 2006). 한부모 어머니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여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는 다른 일하는 어머니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한부모 어머니의 문제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한계로 인한 경제적 복지수준의 저하뿐 아니라 홀로됨과 양육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 한편, 최근에는 모자가족뿐 아니라 부자가족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 아버지가 처한 상황에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손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건과 상황이 변화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심리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의 정책과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부모가족 역시 자녀돌봄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규정되는 가족의 한 유형임을 고려할 때, 자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하겠다. 또한, 한부모이면서 일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경우 다른 일하는 양부모가족에 비해 일-가정 양립 차원을 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돌봄의 양을 보충하기 위한 효과적·효율적 자원관리와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필요로 한다.

과거 모자보호의 관점에서 시작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는 경제적 영역에서 상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도 확대추진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2). 이처럼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마련하고 그 정책영역을 확대해 온 것은 가족정책의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1)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면 18.5% 수준인데(통계청, 2010), 이는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한부모만이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 실제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래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가족변동 위기에 직면하면서 자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방향성의 점검과 재정립은 향후 가족정책의 주요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적 지원망뿐 아니라 공적 지원망의 영역을 포함하면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이르는 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 관리 실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관련된 사회적 자원의 수준을 양부모가족과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이 지닌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수준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부모가족이 지닌 사회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석함은 물론,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기초하여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한부모가족의 정의 및 특성

#### 1)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한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유형을 지칭하나,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경우, 미혼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의미한다. 이때 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에 한정된다(제4조). 이처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법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이 시행되면서 이는 제1차 및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가족정책의 과제영역을 구성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 더불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 역시 교육 및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립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3조).

한부모가족의 자원과 기능에 대한 관계는 ‘취약성’과 ‘건강성’의 두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이 상대적으로 가용자원이 부족하며 그에 따른 가족기능의 수행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부모가족을 취약가족으로서 이해할 때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족 연구의 관점은 한부모가족의 취약성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취약가족이란 경제적 자원, 물질적 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등의 자원을 가지지 못하며 그러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동원할 능력에서도 취약하여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는 가족으로서 “소유, 또는 동원가능한 가족자원이 부

족한 가족(김승권·김유경·박정윤·김연우·최영준, 2011: 41)”으로 정의된다. 취약성의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해 접근하면 한부모가족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그에 따른 자녀돌봄 기능의 충족 간의 관계를 이론적·실천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구조적 빈곤요인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자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가족) 및 조손가족 등의 경우 특히, 취약가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관리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다.

반면, 한부모가족의 이러한 취약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한부모가족의 잠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성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별가계의 한부모 형성과정의 불가피성을 전제하면서 한부모로서 자녀돌봄을 지지할 수 있는 자원관리와 여건의 조성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로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가족건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 대처능력, 자녀적응 등에 영향을 주어 한부모가족의 건강성을 결정하며 복지 및 안정감에 영향을 준다(현은민·임보래·장경문, 2006). 또한 한부모가족은 경험과 적응과정을 통해 가족원간의 유대감, 결속력, 책임의식 등이 강화되면서 양부모가족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공선영, 2000; 조병은 등, 1998)도 건강성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취약성을 강조하여 보유자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계량적 접근은 실제로 한부모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Sen의 능력 접근(capability approach)을 통한 질적 평가의 틀을 이용하여 자원보다 가치를 두는 상태와 행위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기준으로 한부모어머니의 생활실태를 연구한 손

상희 등(2006)의 연구는 기능을 생존·사회통합·성장의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생존기능을 제외한 사회통합 및 성장 차원의 기능은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부모가족의 건강성은 연구 방향성에 중요한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나 취약가족으로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통합과 성장 차원의 요구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사회자본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적 자원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 2) 한부모가족의 특성

전체가구 가운데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지난 1990년 7.8%에서 2010년 9.2%로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2011). 이는 우리사회 이혼율의 증가와 긴밀하게 연관되는데, 지난 1990년 이래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게 된 사유도 급격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한부모 가운데 사별로 인해 형성된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지난 20년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는 급격히 늘어나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자녀돌봄 여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자가족, 부자가족 등 가족형태의 특성상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과 관련된 가족기능 측면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우선 한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압박감으로 작용하며, 사별이나 이혼 등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존감의 저하, 자기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한부모 아버지는 한부모 어머니에 비해 정서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승권 등, 2011; 변화순 등, 2001), 이혼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고충을 비교한 황은숙(2007)의 사례연구에서도 부자가족이 모자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보다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 아버지 역시 불안정한 취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더해 자녀관계, 가사수행, 정서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심해 한부모 어머니에 비해 여건이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공선영, 2000). 이처럼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서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3세대의 확대가구 구성으로 물질적 곤궁을 덜 경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배다영·진미정, 2011),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서비스 수요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최원석, 2011).

## 2.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한부모가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자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부문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지지의 현황과 그에 따른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어 가족이나 친지, 지역사회 등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부문의 지원 현황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자본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으로서 어떠한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적 지원

지난 1955년 전쟁미망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모자보호사업은 198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와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1989년에 이르러 모자복지법이 제정되

었다. 1990년대에는 저소득 모자가족에 대한 학비·양육비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는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2007년 모부자복지법은 다시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모부자가정이라는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조손가족도 대상에 포함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지원 필요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의 대상가족을 규명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시행 이래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다수의 한부모가족 정책과제가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지원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한부모가족도 대상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주요영역은 자녀양육비 등의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 가족역량강화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영역을 통해 전통적으로 제공되어 온 현금성 지원과 시설입소 지원 이외에도 정서적 지원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조손가족 통합지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이 포함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 이외에 한부모가족만을 위한 정책을 정리하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피복비 지원, 동절기 생활안정금 등), 주거(전세자금 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등), 자립(기술교육훈련,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 등), 의료(건강검진비 지원,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지원 등), 자녀양육(자녀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 등의 지원 영역에 걸쳐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김승권, 김연우, 2012).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적 지원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에는 앞서 살펴본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부문에 의한 공적 지원 이외에도 친지, 지역사회, 제3섹터 등을 포함하는 비공식부문의 사적 지지의 측면 역시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이러한 차원의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자원과 유사하게 보았다. 즉,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확대가족, 친구, 친지 등의 비공식 부문의 관계망으로부터 얼마나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정보적 지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회적 자원 수준으로 정의한 것이다.

배우자 부재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1차적 지원망이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특히 동거하지 않는 가족원, 친지, 이웃 등과 형성되는 2차적 지원망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혼한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자녀돌봄의 수행에서 특히 친정부모로부터의 도움, 친구나 이웃 등으로부터의 자녀돌봄 지원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엄미선·전동일, 2006; 이진숙·최원석, 2011). 한부모 어머니와 양부모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사

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신혜진·한인영, 2011)에서는 한부모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 정보 제공 등이 양부모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교육 관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한부모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인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저하하고 긍정적인 정서인 희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김지혜·성정현, 2010).

## 3) 한부모가족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사회적으로 연계된 사람들 사이에서 호혜성의 규범에 의해 교환되는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된다(Lin, 2001; Coleman, 1988).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해 Bourdieu(1986)는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상호면식이 제도화된 관계에서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여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연결망의 규모와 연결망의 수준에 따라 결정됨에 주목하였다. 사회자본이 사유재산과 같이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는 관점은 다음에서 살펴볼 기능론적 관점과는 차이가 크다(Field, 2004). Coleman(1988)은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는 달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하며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구조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신뢰와 규범을 공유하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축적된 사회자본이 결국 인적자본의 형성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강한 연대의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다소 보수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공공재적 속성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Field, 2004).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때 사회자본은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차원에서 집단적 자산과 같은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Field, 2004).

이들 학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회자본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증진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즉, 한부모가족의 가족자원에는 경제적 자원이나 물질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이 지니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유대감, 사회참여 등의 인지적 사회자본이 결국 취약가족으로서의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개별 한부모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와 더불어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참여는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이들에 대해 존재하는 사회적 배제나 편견, 냉대 등의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개념적 속성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난해한 과제가 된다(Grootaert, 2001). 선행연구(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 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 2007; Putnam, 2009)에서는 일정 기간 내 이사 경험, 주거이동 횟수, 사교활동 빈도, 동호회·사회단체 등의 모임 유형과 빈도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정당참여 추세 등을 통해 신뢰 및 유대감의 수준 등을 계량화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자료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선정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유형은 그 원천을 기준으로 크게 가족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도 등을 의미하는 가족내 사회자본의 경우 사적 지원과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확대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관계망의 형성여건과 지역사회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다양하게 유형화된다.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으로 유형화 할 수도 있고, 자녀양육, 일, 빈곤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주관적 측면의 ‘생활만족도’와 객관적 측면의 ‘경제적 복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생활영역의 복합성과 중층성을 반영하면서도 총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건강, 주거, 소득, 일 등의 물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가족관계 및 친분관계를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생활만족도는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자원의 관리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가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김승권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초수급 대상인 한부모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불만족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도구적·정서적·제도적 지지 등 사회적 지원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2)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복지

여러 선행연구(엄미선·전동일, 2006; 김승권 등, 2011)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과 관련한

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영역은 경제적 복지 문제이다. 특히, 김승권 등(2011)의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고민으로 78.2%의 응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으며, 이는 가족원의 건강, 자녀 학업 등의 요인에 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음을 나타낸다. 여러 실증연구(Bartfeld, 2000; Bianchi, Subaiya, & Kahn, 1999; Meyer & Cancian, 1998)에서도 가족소득에 근거를 둔 경제적 복지는 저소득가구의 삶의 질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는데, 미국 저소득 한부모 어머니 연구(Seo, 2005)에서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에 걸친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참여 등의 사회자본의 요인은 인적자본을 통제한 후에도 빈곤한 한부모어머니가 빈곤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공적 지원, 사적 지원, 사회자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원(공적 지원, 사적 지원, 사회자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한부모가족의 빈곤 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한부모가족의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할 때,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공적 지원, 사적 지원, 사회자본)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할 때, 한부모가족 사회적 자원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할 때,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은 경제적 복지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은 각각 다음과 같다.

$$\text{모델 3-1: LS} = F(\text{GS, PS, SC; C}),$$

$$\text{모델 3-2: EW} = F(\text{GS, PS, SC; C}).$$

이때, LS = 생활만족도, EW = 경제적 복지,  
GS = 공적 지원, PS = 사적 지원,  
SC = 사회자본, C = 통제변수.

#### 2. 자료

본 연구는 2009년 조사된 제5차년도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제33109호)로서 표본설계 등에 있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의 설문영역은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지 않은 소규모의 부가조사를 제외하고 가구용 및 가구원용 조사에서 측정된 변수를 이용하였다. 우선 가구용 조사를 통해 가족형태, 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및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의 변수와 주거상태, 가처분소득, 정부보조금·사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이전소득 변수를 이



용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원용 조사를 통해 자원 봉사 및 기부 경험에 대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특히, 공적 지원 관련 변수는 1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건강, 주거, 소득,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생활영역에 걸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수준을 측정할 변수를 이용하였다.

### 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관리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 포함하고 있는 17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n=135).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이외에도 조손가족을 포함하였다. 청소년 한부모가구와 시설 한부모가구는 자료의 특성상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다만, 앞서 <연구문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비교를 위하여 17세 이하 자녀를 둔 양부모가족(n=1,765)도 포함하였다.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우선 삶의 질 변수에는 생활만족도와 경제적 복지의 두 변수가 선정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주관적인 삶의 질, 경제적 복지는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서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원 변수는 크게 공적 지원 변수, 사적 지원 변수, 사회자본 변수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적 지원 변수에는 공식부문, 즉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인 1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및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부자가

정수당, 상담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급식서비스, 학비지원, 예체능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프로그램 등 7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둘째, 사적 지원 변수에는 비공식부문, 즉 가족원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으로부터의 지원과 이웃이나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을 현금성 지원액으로 환산하였다. 셋째, 사회자본 변수에는 한부모가족의 축적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 수준을 각각 측정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이사경험과 자원봉사·기부 경험 등 2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t-test, 교차분석( $X^2$ )을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t-test, 교차분석( $X^2$ ), ANOVA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가족형태는 모자가족이 절반 수준인 51.1%로 가장 많았으며, 조손가족이 28.1%, 부자가족이 20.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규모는 2.82명이었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약 50세,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의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b>삶의 질</b>	
생활만족도	자신의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일, 여가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도(5점 척도)
경제적 복지	가구의 가처분소득(만원/연)
<b>사회적 자원</b>	
<b>공적 지원 변수</b>	
모부자가정수당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에 대한 정부지급 수당(만원/연)
상담프로그램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여부(1=예; 0=아니오)
방과후프로그램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공부방 등의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여부(1=예; 0=아니오)
급식서비스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급식 서비스 지원 여부(1=예; 0=아니오)
학비 지원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학비 지원 여부(1=예; 0=아니오)
예체능교육프로그램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육 지원 여부(1=예; 0=아니오)
문화활동프로그램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연극, 영화, 견학, 캠프, 답사 등의 문화활동 지원 여부(1=예; 0=아니오)
<b>사적 지원 변수</b>	
비동거가족원의 지원	동거하지 않는 부모 및 자녀로부터의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 지원금액(만원/연)
지역사회의 지원	이웃, 민간단체 등 비공식 부문의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 지원금액(만원/연)
<b>사회자본 변수</b>	
이사 경험	지난 1년간 주거 이전 여부(1=예; 0=아니오)
자원봉사 및 기부	지난 1년간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여부(1=예; 0=아니오)
<b>통제변수</b>	
취업 여부	실업상태나 무직상태에 있지 않으며, 임금근로, 공공근로, 자영업 등에 종사(1=예; 0=아니오)
빈곤가구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가구에 해당(1=예; 0=아니오)
가족형태	모자가족(기준), 부자가족, 조손가족으로 구분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기준),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

〈표 2〉 조사대상(한부모가족)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 M(SD)
가족형태	모자가족	69(51.1)
	부자가족	28(20.7)
	조손가족	38(28.1)
가구원수(명)		2.82( .80)
연령(세)		49.99(15.02)
연가처분소득(만원)		2252.67(2739.07)
교육수준	무학	17(12.6)
	초졸	19(14.1)
	중졸	15(11.1)
	고졸	67(49.6)
	전문대졸 이상	17(12.6)
혼인상태	유배우	17(12.6)
	이혼	78(57.8)
	사별	29(21.5)
	별거	7( 5.2)
	미혼	4( 3.0)
기초생활보장수급	해당	68(50.4)
	비해당	67(49.6)
종교	있음	74(54.8)
	없음	61(45.2)
고용상태	상용직 임금근로	19(14.1)
	임시직 임금근로	20(14.8)
	일용직 임금근로	19(14.1)
	자활근로/공공근로	8( 5.9)
	자영업	19(14.1)
	실업	2( 1.5)
	일하지 않음	48(35.6)
N		135

비율은 낮고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7.8%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별(21.5%)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배우, 별거, 미혼의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에서 절반 수준인 약 50%

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는 비율도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약 55% 수준이었다.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보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 비율과 자영업 종사 비율이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활 및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고, 실업상태에 있는 비율은 1.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한편,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약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 수준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자녀양육·교육에 관

련된 비용 및 서비스를 포함한 공적 지원의 경우 방과후프로그램, 급식서비스, 학비지원, 예체능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의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수당 변수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두 집단 간의 사적 지원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가족원과 지역사회로부터 제

<표 3>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 차이검정 결과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X <sup>2</sup> / t
		N(%) / M(SD)	N(%) / M(SD)	
<b>공적 지원 변수</b>				
상담 프로그램	이용	6(4.4)	74(4.2)	.02
	비이용	129(95.6)	1691(95.8)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33(24.4)	94(5.3)	73.491***
	비이용	102(75.6)	1671(94.7)	
급식서비스	이용	96(71.1)	490(27.8)	110.484***
	비이용	39(28.9)	1275(72.2)	
학비지원	이용	55(40.7)	216(12.2)	83.314***
	비이용	80(59.3)	1549(87.8)	
예체능교육 프로그램	이용	7(5.2)	19(1.1)	15.685***
	비이용	128(94.8)	1746(98.9)	
문화활동 프로그램	이용	10(7.4)	17(1.0)	37.177***
	비이용	125(92.6)	1748(99.0)	
<b>사적 지원 변수</b>				
비동거가족원의 현금성 지원(만원)		170.23(361.47)	131.72(424.51)	1.026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만원)		336.59(1827.62)	96.91(268.15)	1.522
<b>사회자본 변수</b>				
이사 경험	있음	19(14.1)	228(12.9)	.146
	없음	116(85.9)	1536(87.1)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7(5.2)	231(13.2)	7.278**
	비참여	128(94.8)	1521(86.8)	
N		135	1765	-

\*\*\* p<0.001, \*\* p<0.01, \* p<0.05

공받는 현금성 지원의 수준이 각각 양부모가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사회자본 변수를 보면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간의 이사경험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 및 기부 경험은 양부모가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 3.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원

한부모가족의 빈곤 수준, 가족형태, 취업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한부모가족의 빈곤 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차이 검정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	X <sup>2</sup> / t
		N(%) / M(SD)	N(%) / M(SD)	
<b>공적 지원 변수</b>				
모부자가정수당(만원)		6.24(47.19)	9.75(28.51)	-0.522
상담프로그램	이용	4(5.9)	2(3.0)	.667
	비이용	64(94.1)	65(97.00)	
방과후프로그램	이용	18(26.5)	15(22.4)	.305
	비이용	50(73.5)	52(77.6)	
급식서비스	이용	64(94.1)	32(47.8)	35.302***
	비이용	4(5.9)	35(52.2)	
학비지원	이용	39(57.4)	16(23.9)	15.662***
	비이용	29(42.6)	51(76.1)	
예체능교육 프로그램	이용	5(7.4)	2(3.0)	1.310
	비이용	63(92.6)	65(97.0)	
문화활동 프로그램	이용	7(10.3)	3(4.5)	1.665
	비이용	61(89.7)	64(95.5)	
<b>사적 지원 변수</b>				
비동거가족원의 현금성 지원(만원)		115.23(235.95)	225.66(450.09)	-1.775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만원)		431.41(2525.20)	240.34(538.28)	.606
사회자본 변수				
이사 경험	있음	7(10.3)	12(17.9)	1.619
	없음	61(89.7)	55(82.1)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2(2.9)	5(7.5)	1.403
	비참여	66(97.1)	62(92.5)	
N		68	67	-

\*\*\* p < 0.001, \*\* p<0.01, \* p<0.05

1) 한부모가족의 빈곤 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수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기준으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로 구분하여 t-test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공적 지원 변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급식서비스, 학비지원 등의 이용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부자가정수당 평균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약 1.5배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예체능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프로그램 등의 이용수준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비수급가구에 비해 이용가구가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빈곤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돌봄 관련된 수당 및 프로그램 등 공적 지원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빈곤 수준에 따른 사적 지원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비수급가구에 비해 지역사회로부터의 현금성 지원 수준은 높았으나,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의 현금성 지원 수준은 더 낮았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빈곤 수준에 따른 사회자본 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비수급가구에 비해 자원봉사 및 기부에 참여한 비율은 낮았으나, 이사를 경험한 비율 역시 낮게 나타났다. 즉, 빈곤선 이하의 가계는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측면에서 안정된 여건 하에 있음에도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한부모가족의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수준

한부모가족의 가족형태를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으로 구분하여 이들 세 집단 간의 사회적 자원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공적 지원 변수의 차이를 보면, 급식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모부자가정수당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만 해당하므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만 검증하였는데, 모자가족이 부자가족에 비해 모부자가정수당 평균액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상담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학비지원, 예체능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프로그램 등의 이용 여부 역시 대체로 부자가족의 이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적 지원 변수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가족형태에 따라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의 현금성 지원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가족원의 지원이 가장 높은 조손가족의 경우 부자가족에 비해서는 약 4.5배, 모자가족에 비해서는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에 있어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자본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사 경험과 자원봉사 및 기부참여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부자가족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주거 이동이 더 잦았으나 사회참여 수준이 오히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취업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수준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 집단과 비취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 간의 사회적 자원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공적 지원 변수 가운데 학비지원 수혜여부에 대해서만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취업 한부모가족의 학비지원 수혜경험이 취업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모부자가정수당은 취업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외의 상담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학비지원, 예체능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프로그램 등의 이용 역시 가구주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학비지원과 더불어 방과후프로그램과 급식서비스의 경우 취업집단이 비취업집단에 비해 이용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프로그램, 예체능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프로그램에서는 취업집단의 이용비율이 비취업집단보다 약간 높았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취업 여부에 따른 사적 지원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비동거가족원의 현금성 지원액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 수준은 가구주가 취업한

〈표 5〉 한부모가족의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차이 검정 결과

구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X <sup>2</sup> / t
	N(%) / M(SD)		N(%) / M(SD)		N(%) / M(SD)		
<b>공적 지원 변수</b>							
모부자가정수당(만원)	14.74(53.31)		2.14(11.34)		-		2.189
상담 프로그램	이용	5(7.2)	0(.00)		1(2.6)		2.872
	비이용	64(92.8)	28(100.0)		37(97.4)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19(27.5)	3(10.7)		11(28.9)		3.632
	비이용	50(72.5)	25(89.3)		27(71.1)		
급식 서비스	이용	50(72.5)	14(50.0)		32(84.2)		9.310*
	비이용	19(27.5)	14(50.0)		6(15.8)		
학비지원	이용	30(43.5)	6(21.4)		19(50.0)		5.889
	비이용	39(56.5)	22(78.6)		19(50.0)		
예체능교육 프로그램	이용	6(8.7)	0(.00)		1(2.6)		3.765
	비이용	63(91.3)	28(100.0)		37(97.4)		
문화활동 프로그램	이용	6(8.7)	1(3.6)		3(7.9)		.781
	비이용	63(91.3)	27(96.4)		35(92.1)		
<b>사적 지원 변수</b>							
비동거가족원의 현금성 지원(만원)	80.35(204.89)		133.96(400.96)		360.15(475.00)		8.343***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만원)	579.77(2535.59)		85.39(191.20)		80.11(169.77)		1.254
<b>사회 자본 변수</b>							
이사경험	있음	8(11.6)	7(25.0)		4(10.5)		3.510
	없음	61(88.4)	21(75.0)		34(89.5)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4(5.8)	3(10.7)		0(.00)		3.872
	비참여	65(94.2)	25(89.3)		38(100.0)		
N	69		28		38		

\*\*\* p<0.001, \*\* p<0.01, \* p<0.05

〈표 6〉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차이 검정 결과

구분	가구주 취업		가구주 비취업		X <sup>2</sup> / t
	N(%) / M(SD)		N(%) / M(SD)		
<b>공적 지원 변수</b>					
모부자가정수당(만원)		11.54(48.26)	1.92(9.80)	1.777	
상담프로그램	이용	6(7.1)	0(0)	3.694	
	비이용	79(92.9)	50(100)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20(23.5)	13(26.0)	.104	
	비이용	65(76.5)	37(74.0)		
급식서비스	이용	56(65.9)	40(80.0)	3.054	
	비이용	29(34.1)	10(20.0)		
학비지원	이용	26(30.6)	29(58.0)	9.798**	
	비이용	59(69.4)	21(42.0)		
예체능교육 프로그램	이용	6(7.1)	1(2.0)	1.639	
	비이용	79(92.9)	49(98.0)		
문화활동 프로그램	이용	8(9.4)	2(4.0)	1.344	
	비이용	77(90.6)	48(96.0)		
<b>사적 지원 변수</b>					
비동거가족원의 현금성 지원(만원)		107.35(281.24)	277.14(450.79)	-2.402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만원)		382.88(2264.41)	257.88(578.20)	.383	
<b>사회자본 변수</b>					
이사 경험	있음	12(14.1)	7(14.0)	.000	
	없음	73(85.9)	43(86.0)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4(4.7)	3(6.0)	.107	
	비참여	81(95.3)	47(94.0)		
N		85	50	-	

\*\*\* p<0.001, \*\* p<0.01, \* p<0.05

집단이 취업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았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사회자본 변수 역시 모두 가구주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사경험이나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행태는 가구주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이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4.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효과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 변수의 독립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생활만족도와 경제적 복지의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



〈표 7〉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효과

변수	모델 3-1		모델 3-2	
	생활만족도		경제적 복지	
	$\beta$	S.E	$\beta$	S.E
<b>공적 지원 변수</b>				
모부자가정수당	.000	.002	.901	2.685
상당프로그램 이용	-.322	.349	716.147	547.075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096	.165	-94.995	258.949
급식서비스 이용	-.032	.194	93.031	304.022
학비지원 수혜 경험	-.008	.151	506.794 *	236.689
예체능교육프로그램 이용	.249	.313	-37.367	491.189
문화활동프로그램 이용	-.177	.259	461.163	406.510
<b>사적 지원 변수</b>				
비동거가족원의 현금성 지원	.000	.000	1.594 ***	.298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	5.359E-5	.000	1.318 ***	.062
<b>사회자본 변수</b>				
이사 경험	-.444 *	.188	-19.153	294.958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690 *	.296	-86.124	463.550
<b>통계변수</b>				
빈곤가구	-.480 **	.169	-398.146	264.491
취업	-.203	.171	674.085 *	268.716
가족형태(기준: 모자가족)				
부자가족	.062	.170	642.656 *	265.859
조손가족	.315	.277	50.432	434.531
교육수준(기준: 고졸)				
중졸 이하	-.311	.215	-231.018	336.847
전문대졸 이상	.230	.200	425.875	314.335
이혼 경험	.001	.174	-8.714	272.371
상수	3.604 ***	.261	912.684 *	409.152
R <sup>2</sup>	.228		.865	
F	1.907*		41.193***	
N	135			

\*\*\* p<0.001, \*\* p<0.01, \* p<0.05

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에서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이 모두 2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효과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3-1의 결정계수(R<sup>2</sup>)는 .228로 나타났고, 모

델의 적합성도 유의하였다. 비표준화회귀계수( $\beta$ )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 변수 가운데 사회자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이사 경험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444점이 낮게 나타났다으며, 자원봉사 및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90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여부만이 유의하였는데, 다른 가구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480점 낮았다.

## 2)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효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경제적 복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3-2의 결정계수( $R^2$ )는 .865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성도 유의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 변수 가운데 사적 지원 변수에 속하는 비동거가족원 및 지역사회의 현금성 지원을 측정한 두 변수와 공적 지원 변수 가운데 학비지원 수혜경험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면 비동거가족원 및 지역사회 현금성 지원이 1만원 증가할 때 가처분소득이 각각 1.6만원, 1.3만원 증가하였다. 학비지원 수혜경험은 가처분소득을 연간 506만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구주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한 가구에서, 모자가족에 비해 부자가족일 때 각각 가처분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 수준을 3개 영역, 즉 공적 지원, 사적 지원,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 변수가 이들의 복지, 즉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이 각각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사회적 자원 가운데 공적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적 지원 및 사회자본 투자는 향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어떠한 사회적 자원의 수준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게 개별 한부모가족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수준이 체감도 측면에서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충분히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양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은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공적 지원 서비스를 차별성 있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적 지원영역, 특히 비동거가족원에 의한 지원 수준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웃이나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지원 수준은 양부모가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체계에서 정부에 의한 공적 지원과 개별 가족원의 사적 지원 사이 어딘가에 속하는 제3부문으로 볼 때, 최근 우리사회의 복지실현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제3부문의 역할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내 사적 지원망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현물 및 현금 지원의 맞춤형 연계사업,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수준이 대체로 저조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이 스스로 사회자본 형성의 주체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정부부문 주도의 공적 지원이 한부모가족의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립과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들은 정의상 한쪽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질적 특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구조적 다양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중요한데,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 여건이 지니는 다양한 스펙트럼은 위기시 필요한 긴급지원이나 단기성 지원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가정생활을 만족할 만큼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기역량의 강화 혹은 임파워먼트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분석에서 현금성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급식서비스나 학비지원 서비스 이외에는 공적 지원의 활용에서 별다른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적 지원 변수는 상당부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 즉 친밀감과 유대에 의한 사적 상호작용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빈곤가구는 비동거가족원에 의한 지원에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원도 유의하게 차이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향후 소득계층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립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가족유형에 따른 비교를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의 공적 부문의 지원과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결과, 현금성 지원에 가까운 급식 지원을 제외하고 상담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의 이용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 선행연구에서 부자가족의 특성상 모자가족에 비해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용수준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자가족의 경우 모자가족에 비해 소득계층이 높아 공적 부문 서비스 이외의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자녀관련 서비스 이용정보가 부족하거나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분리의식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 및 교육 참여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부모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녀의 원만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교육 등의 정보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구주의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지 않으면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할 가능성이 높아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분석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급식서비스나 학비지원 서비스와 같은 현금성 지원 속성이 강한 프로그램 이용수준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비취업가구의 이용수준이 높았으며 다른 프로그램 이용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자원봉사 및 기부참여 수준에서도 일하는 한부모가족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결과를 볼 때, 향후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참여대상의 속성을 보다 세분화한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의 이전과 지역사회 내 가족간 자원연계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취업 한부모가족이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취업을 원하지만 여건상 포기하고 있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는 비취업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원봉사나 기부 등의 사회적 참여가 실제로 ‘약한 연대(weak ties)’의 ‘연계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형성하여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취업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투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부문에 의한 공적 지원만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는 불충분하므로(김승권·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취업과 자녀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운영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근로를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의 효과에 있어 그 차이가 뚜렷함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사회적 자원 변수 가운데서 관계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나 사회적 참여 등의 사회자본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박미은·신희정, 2010; 유현숙·곽현근, 2007)에서 지적한 한부모가족에 대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배제 혹은 낙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자본의 의의를 시사한다. 반면, 객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경제적 복지 수준은 결국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에 걸친 현금성 지원의 크기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적 부문의 서비스 지원 및 사회자본 변수가 한부모가족의 가처분소득

에 영향을 줄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모델을 통해 분석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특히, 김승권 등(2011)의 연구에서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을 급여나 수당 중심에서 가족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 수준 증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의 전환에 앞서 실효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수당과 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장기적 효과의 비교도 관련되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성 있는 한부모가족 표본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수준을 살펴보고,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간의 차이, 한부모가족 내부의 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조사대상이므로 이처럼 확률표집에 의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만, 이 자료에서도 부자가족이나 조손가족과 같은 소수의 한부모가족의 경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여전히 어려우므로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는 자료의 축적으로 ‘다양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제5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사회자본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응답자 규모가 상당히 작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론적

연구가 축적될 수 있도록 사회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 변수의 측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는데 있어 어떠한 사회적 자원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증이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1) 공선영(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 김승권·김연우(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4, 59-69.
- 3) 김승권·김유경·박정운·김연우·최영준(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김오남(2005).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43(1), 129-144.
- 5) 김지혜·성정현(2010). 빈곤가장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1), 65-93.
- 6) 박미은·신희정(2010). 생애사 연구를 통한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과정과 사회적 배제의 경험: 대전지역의 빈곤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36(3), 167-193.
- 7)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2008).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 배다영·진미정(2011).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121-140.
- 9)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0) 손상희·성미애·진미정(2006). 빈곤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 Sen의 능력 접근을 기반으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11) 신희진·한인영(2011).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 양부모 가정 어머니와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6(3), 401-422.
- 12) 엄미선·전동일(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11.
- 13)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14) 유현숙·곽현근(2007).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가을), 245-272.
- 15) 이진숙·최원석(2011). 이혼한 한부모의 사회 서비스 욕구에 관한 성별 비교 분석. 여성학 연구, 21(3), 141-171.
- 16) 조병은·서동인·신화용·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 17) 통계청(2011). 인구주택총조사.
- 18) 현은민·임보래·장경문(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 19) 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20) 황은숙(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층 비교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 1-20.
- 21) Bartfeld, J. (2000). Child support and the post-divorce economic well being of mothers, fathers and children. Demography, 37,

- 203-213.
- 22) Bianchi, S. M., Subaiya, L., & Kahn, J. R. (1999). The gender gap in the economic well-being of nonresident fathers and custodial mothers. *Demography*, 36, 195-203.
- 23)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 24)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1.
- 25) Edin, K. & Lein, L. (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26) Field. J. (2004). *Social Capital*. New York: Routledge.
- 27) Grootaert, C., & Bastelaer, T.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multidisciplinary tool for practitioners*. Washington, D. C: World Bank.
- 28)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9) Meyer, D. R.,. & Cancian, M. (1998). Economic well being following and exit from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479-492.
- 30)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31) Putnam, R. D. (2009).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 서울: 페이퍼로드.
- 32) Seo, J.(2005). *Overcoming economic hardship: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투 고 일 : 2012년 12월 31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2월 7일